

도내 저수지 대부분 농업용 기능 상실

용포지역 3곳 녹조현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공급 중단 저수지 수질검사서 질소 성분 기준치의 10배가량 초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제주지역 저수지 7곳 가운데 5곳이 수질문제와 활용방안 부재 등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제주지역 저수지는 서부지역 6곳, 동부지역 1곳 등 총 7곳이다. 이중 제주시 한림읍 지역 3곳은 지난해 말부터 녹조현상이 발생해 농업용수 공급이 일시 중단됐고, 제주시 애월읍 지역 2곳은 1980년대 지하수 관정 개발 이후 공급 기능을 사실상 상실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2018년 조성된 한림읍 용포리 지역의 동명·지향·상대저수지 3곳은

바다로 흘러가는 용천수 일부를 저수지에 저장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3곳 저수지의 총 저수량은 63만t으로 제주시 한림읍 지역 11개 마을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녹조현상이 발생하면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녹조개선 사업이 이뤄지면서 현재까지 농업용수 공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녹조현상은 호수나 저수지 등의 정체된 수역에 축산폐수 등에 다량 함유된 질소나 인 성분의 영양염류가 과다 유입돼 부영양화로 인한 용존산소 결핍현상 등으로 물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 용포리 지역의 저수지 원수인 용천수

수질검사 결과 총 질소는 기준치의 10배, 총 인 역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녹조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1960년에 조성된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 위치한 수산저수지와 1954년 조성된 광령저수지는 논 농사 도입 목적으로 조성돼 농업용수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지하수 관정 개발이 이뤄진 이후 논농사가 밭농사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이 줄었고, 최근에는 농업용수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녹조현상이 발생한 동명·지향·상대저수지에 예산 8억원을 투입해 녹조 저감 시설 등을 최근 설치 완료했으며 내달 1일부터 정상 공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수질 검사에

서도 질소와 인의 성분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녹조 저감 시설 등이 설치되더라도 향후 녹조현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한림읍 지역 마을회와 간담회를 통해 녹조 저감 개선 사업 기간에는 단수키로 결정하고 공급을 일시 중단한 것”이라며 “현재 녹조현상이 해소됨에 따라 내달부터 용수 공급을 정상화하고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량 관리를 최소화해 용수를 탄력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산·광령 저수지와 관련) 현재 해당 저수지는 비상소방용수와 가뭄 대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의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을 통해 활용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윤기자 ty456@ihalla.com

학교현장 외면받는 교장공모제

올해 지정 9개교 모두 재공고 지원자 미달로 해마다 되풀이

승진 위주의 교직원화 개선과 민주적 학교 경영 리더십 확보 등을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이 저조하다. 매년 지원자 미달로 재공고가 되풀이 되는 등 외면받으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올해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지정학교 5개교(초빙형 3개교, 내부형 2개교)에 대한 재공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초 1차 교장 공모 공고에서 지원자가 없거나 한 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1일자 교장공모(4개교 대상)도 4개교 모두 재공고가 이뤄졌다. 1차 공고 후 지원자가 2명 미만이면 재공고를 해야 한다.

최근 4년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공모지정 학교 7개교(상·하반기) 중 6개교, 2018년 8개교 중 6개교, 2019년 10개교 중 5개교, 2020년 7개교 중 2개교가 재공고 수순을 밟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4개교의 교장공모 지정이 철회된 바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공모교장을 꺼리는 이유로 학교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부담감 등이 거론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 취지가 내실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살피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장공모제는 2010년까지 시범운영(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이었다가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법제화됐다. 초빙형 공모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내부형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교육경력 15년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오은기기자

부동산 72개 중개업소 무더기 행정처분

제주시, 개설등록 하지 않고 불법 중개 행위 등 적발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수수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중개업소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상반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중개업소 7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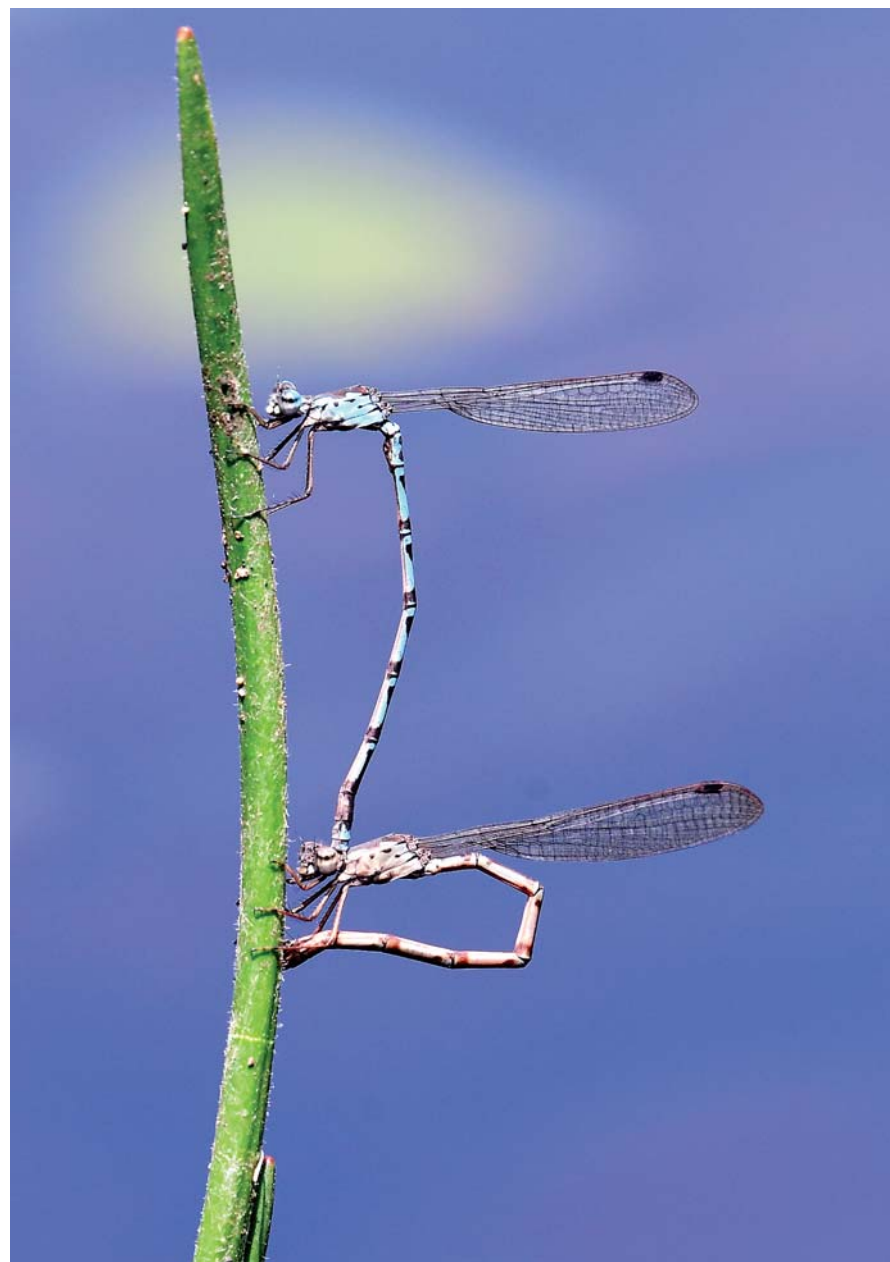
이번 점검은 제주시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7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및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징수 행위 등 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개보수 초과 수수에 따른 형사고발, 중개대상물 표시·광

고위반 행위 등이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에 따른 형사고발 1개소 ▷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광고 형사고발 4개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한 중개업소 34개소에 대해 과태료 각 25만원 부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한 중개사사무소 1개소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또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 정도가 경미한 32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찍짓기 하는 실잠자리 한쌍 무더운 날씨를 보인 22일 제주시 조천읍 선출리 동백동산 만물각 연못에 실잠자리 한쌍이 수초에 매달려 찍짓기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실험은 실패”

어제 도내 37개 시민사회·정당 ‘연대회의’ 출범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3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2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19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도민 반대에도 국회서 날치기 통과됐다”며 “10년 후인 2002년 1월에는 제주도와 정부가 도민을 상대로 신자유주의 실험을 하겠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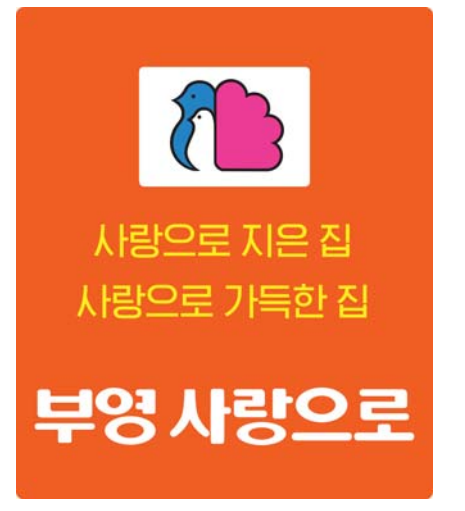
이어 “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의 소득 향상을 보장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임금수준은 제자리걸음이고, 2018년 기준 제주 영세 자영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로 제주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 2002년 대비 농지 2100ha, 초지 2680ha, 임야 5600ha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끊임없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국제자유도시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는데, 실제 2017년 제주 상위 0.1%의 평균 종합소득은 하위 10% 종합소득의 약 2449배에 달했다”며 “또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난

개발로 인해 동식물 서식지 감소, 교통 혼잡, 하수도,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에도 제주도와 정부, 정치권은 지난 20년간 국제자유도시 개발시대를 성찰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 개발 중심, 규제완화 중심의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오늘 제주전역 5~20mm 소나기 내릴 듯

기상청 “최고기온 26~27℃”

23일 오후 제주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3일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제주 전역에 5~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며 “24일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

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나기로 인해 23일은 산지, 24일은 산지와 동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짧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야겠다.

23일 낮 최고기온은 26~27℃를 보이겠으며,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1℃, 낮 최고기온은 25~26℃로 예보됐다. 송은범기자

태양광 지원사업 상시 예비접수중

🏠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사업 수혜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